

[졸업생 인터뷰 1]

건축공학과 14학번

김힘찬 (한국전력공사, 2년차 사원)



질문 1 : 대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잘했다 싶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잘한 점

① 전공수업만큼은 열심히 들은 것

대학시절에 쌓아 놓았던 전공지식들은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됐어요.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공지식들은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후배님들도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성적도 잘 받으시고, 입사 후에도 전공지식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② 팀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업무를 하다보면 분명히 협업이 필요한 상황,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대학시절에 참여하는 팀프로젝트에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사 후에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팀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이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

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지 않은 것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취업시기가 다가와서야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후배님들은 미리미리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원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② 여행을 자주 못 다닌 것

저도 대학생시절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니곤 했지만, 더 많이 더 자주 갔다 올 걸 하는 후회가 남아요. 이제 취업을 하고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대학생활을 할 때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니기 힘들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며 식견을 넓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2 : 후배들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현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를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란 발전소에서 발전된 고압의 전기를 수요자에게 보내기 위해 전압을 낮추는 시설이에요. 변전소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인 변압기의 집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공기간 동안 지금의 업무가 국민을 위한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는 회사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엄청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축직군이 하는 업무는 사옥과 변전소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 대학생할 하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조화롭게 준비하세요.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수 있는 평가를 말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 정량평가에 해당합니다.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하고 싶은지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일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에서만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 나가다보면 본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거예요.

정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없는 평가를 말합니다.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스펙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지만 더 많은 자격증, 더 높은 어학점수를 갖추는데 얽매어서 주변을 못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 있듯이 단순히 스펙만 갖추려고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원하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최근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정량평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 4 : 그 외에 후배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업을 너무 걱정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난 속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시절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대학생활은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마지막 학창시절이 될 거예요. 동기들, 선후배님들과 엠티도 가보고 축제,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해보시고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다양한 곳을 구경하고 여행하면서 즐거운 추억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은 미화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 조별과제, 프로젝트 완성 등 하기 싫은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네요. 후배님들도 행복한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악조건 속에서도 피는 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갑한 상황이지만 항상 건강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인터뷰 2]

건축공학과 15학번

박현우 (포스코건설, 1년차 사원)



질문 1 : 대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잘했다 싶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잘한 점

① 대학생활 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번 뿐인 대학생활 늘 때도 열정적으로! 공부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활을 끝내고 보면 결국 기억 속에 남는 건 동기들이랑 같이 놀았던 추억, 같이 밤새서 공부했던 추억만 남더라구요! 여러분들도 4년의 대학생활 짝짝 채워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② 먼저 준비하세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 영어성적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할 텐데 4학년 때 다 준비하려면 아마 힘들꺼예요! 방학 때나 학기 중 남는 시간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남들보다 여유 있게 취업준비를 하실 수 있을꺼예요!

취업의 문턱은 높겠지만, 제가 성공한 것처럼 후배님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③ 동기사랑

저도 취업했지만 아무래도 힘들 때나 슬플 때 같이 고민을 나눌 친구들은 동기들밖에 없더라구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구들인 만큼 제 고민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해줍니다. 후배님들도 동기들과 끈끈한 우정가지고 언제든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동기들로 남길 바랍니다!

아쉬운 점

① 시사 상식은 필수!

저도 입사하고 느낀 거지만, 제 동기들은 건설관련 뉴스나 시사 상식을 채우기 위해 아침에 인터넷뉴스를 보는 동기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면접 준비때문에 뒤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저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후배님들도 혹시나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짧은 뉴스기사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② 모르는건 언제든

아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강의가 많이 진행되곤 할텐데,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교수님이나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여쭙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친절하게 설명해주실꺼예요!

질문 2 : 후배들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현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건축 직무는 공사 현황 파악, 공정표 작성, 검측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이 잘 지어지는지 확인 및 감독하면서 공정, 원가,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물론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질문 3 : 대학생활 하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누구보다 대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총학생회, 서포터즈, 학교 홍보대사 등 다양한 대외활동과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던 활동들을 회사에서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까지 한다면 더 좋겠지만요!
후배님들도 학점 관리와 영어점수는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 대외활동과 공모전에 참여하시면 취업준비할 때 조금 수월할꺼예요!

질문 4 : 그 외에 후배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후배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초반의 청춘을 열정적으로!!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기들과 계속해서 친분 유지하시고, 끝까지 친구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할때는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을텐데 절대 기죽지 마세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파이팅하시고 혹시나 나중에 포스코 건설에 입사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밥한끼 사드리겠습니다!